아우디코리아, '신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개최

"A6e-트론·Q5 등 16종 신차 출시… 프리미엄 가치 전달"

변화하는 고객 요구 적극 대응
수도권 서비스센터 네트워크 강화
클로티 사장 "지속가능 성장 추구"

"지난해 내실을 다졌다면 2025년은 네트워크 강화와, 딜러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13일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에서 '신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올해 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핵심 전략은 프리미엄 가치 전달과 변화하는 고객 요구, 자동차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올해 한국 시장에 전기차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을 포함해 A6 e-트론과 내연기관차 더 뉴 아우디 A5, 더 뉴 아우디 Q5 등 총 16종의 신차를 출시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차 출시라는 설명이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13일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에서 올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아우디 코리아가 13일 신라호텔 서울 영빈관 에메랄드홀 앞에 Q4 e-트론(왼쪽부터), Q6 e-트론, Q7, Q8을 전시했다. /아우디코리아

클로티 사장은 "올해 아우디코리아는 딜러사들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우디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세우고,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가 올해 주력으로 내세운 모델은 Q6 e-트론으로,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PPE)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양산 모델이다. 유럽 신차안전도 평가인 유로NCAP 테스트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으며, 100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WLTP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641㎞ 주행이 가능하다. 내달 중 고객 출시 행사와 함께 순차적으로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클로티 사장은 "지난해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Q4 e-트론은 프리미엄 전기차 리더로서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발맞추면서 지속가능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딜러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하나의 아우디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뉴 아우디 A5와 더 뉴 아우디 Q5는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된다. 이들 차종엔 새롭게 개발된 'PPC'(프리미엄 플랫폼 컴버스천) 플랫폼이 적용됐다. 더 뉴 아우디 A5는 아우디의 대표 중형 세단인 A4·A5의 장점을 모아 출시되는 쿠페 스타일의 세단이다. 또 더 뉴 아우디 Q5는 아우디의 시그니처 SUV Q5의 완전 변경 모델로, 차세대 고효율 엔진을 탑재해 출력을 크게 높였다.

특히 아우디코리아는 올해부터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 콘셉트의 전시장을 시티몰 전시장 형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시장은 기존 33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서비스센터로 기존 32개에서 37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클로티 사장은 "서울과 경기 등 고객 밀집 지역에서 30분 이내로 서비스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경정비나 정기점검은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 스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전고체 배터리 연구성과 발표… 일부 특허 출원

광소결 기술, 배터리 제조 공정 접목
LMRO 양극재 적용 가능성 분석도

SK온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기술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SK온은 국내 유수 대학·기관과 함께 진행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작성돼 최근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SK온이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진호 박사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연구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공정 고도화가 핵심이다. 인쇄 회로 기판 공정에 주로 활용되는 광소결 기술을 배터리 제조에 접목시킨 획기적인 연구라는 평이다.

해당 연구를 다룬 논문은 에너지·화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ACS 에너지 레터스'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논문 저자 9명 중 6명이 SK온 구성원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로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고체 전해질 종류는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로 나뉜다.

산화물계 전해질 소재는 리튬이온 이동 경로 및 기계적 강도 증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1000도 이상의 고온 및 10시간 이상의 열처리 공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제조 원가 부담과 더불어 소재의 취성 파괴와 같은 취약점이 대두되며 대면적화가 과제로 여겨졌다.

SK온은 빠른 속도와 저온 열처리가 특징인 광소결 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먼저 연구진은 조사된 빛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유색 무기 안료를 발견해 산화물 전해질 소재에 적용시켰다.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수 초안에 열처리를 가능케하는 초고속 광소결 기술을 활용, 최적의 균일성을 갖는 다공성 구조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망간리치(LMRO) 양극재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대학교 이규태 교수 연구팀과 진행한 이 연구는 에너지 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의 표지 논문으로 지난 2024년 12월 발간됐다.

LMRO 양극재는 원가적 이점이 크지만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에 적용시 액체 전해질 부반응로 인한 가스 발생, 전압 강하·용량 감소 등의 난제가 있었다.

SK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발생을 저감하는 특수 코팅재를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오토에버
김지현 DX센터장 영입

현대오토에버가 디지털 전환(DX)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제조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경험 전략을 총괄하는 DX센터를 신설하고, 김지현 상무를 초대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상무는 초대 DX센터장으로서 ▲디지털 서비스 전략수립 ▲국내외 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기반 품질평가 등 디지털 경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김지현 상무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DX 전략을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사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13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을 마친 고객에게는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을 무상 지급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15일부터 17일까지 마이현대·마이기아·마이제네시스 등 차량 점검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다음,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유럽 상용차·수소 법인 조직개편

리더십 재정비… 수소트럭 본격 판매

현대차가 글로벌 상용차 사업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수소트럭 판매 확대에 본격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유럽에 상용차 및 수소 법인을 설립하고, 그동안 글로벌 상용 비즈니스 사업 부장을 맡았던 마크 프레이뮬러 전무를 실장으로 이동시켰다.

프레이뮬러 전무는 앞으로 유럽 내 수소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 등 모든 밸류체인을 감독하며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수소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을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레이뮬러 전무 후임으로는 박철연 글로벌 수소 비즈니스 사업부장(전무)를 임명했다. 박 전무는 그동안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차 부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수소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은 총중량 28톤급으로, 한번 충전에 최대 570㎞를 주행할 수 있다. 대형 트럭의 주류 차종인 경유(디젤) 트럭보다 우수한 성능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 최초 양산 수소트럭인 엑시언트 퓨얼셀이 장착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대형 배터리보다 가볍고 충전 시간이 15~20분으로 짧아 장거리 물류 운송에 최적화 돼 있다.

엑시언트 퓨얼셀은 이미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스위스에서는 이미 엑시언트가 누적 주행거리 1000만㎞를 돌파하며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했다.

프랑스에서는 독일 렌탈 업체 하이레인과 종합 물류기업 DB쉥커를 통해 엑시언트 퓨얼셀 능력을 검증했다. 프랑스 진출은 유럽 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엑시언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향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로도 공급처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상용차 수출을 책임지게 된 박철연 전무도 엑시엔트 수소전기트럭의 해외 영토 확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넥센타이어
미래 모빌리티 제품 선봬

넥센타이어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디자인한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타이어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우수 작품은 '도시 외곽과 중심을 순환하는 분리·결합형 대중교통'으로 마곡 더넥센유니버시티에 전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로 공개한다.

미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며 운행할 대중교통 모빌리티로, 사방에 장착된 타이어 휠로 승·하차와 환승이 가능하며 휠 탈착으로 모빌리티를 자유롭게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또 진행 방향을 360도로 전환할 수 있는 옴니휠 기술을 적용해 모빌리티의 이동성을 극대화한다. /양성운 기자